

[문제] (가)에서 ㉠의 이유를 추론하고, 그 맥락에서 (나)의 ‘그, / 어떤, / 문’과 ‘키위새’가 각각 표상하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를 해석하여 제시한 후, (다)의 두 자료를 모두 활용하여 (가)의 ㉡에 답하는 글을 쓰시오. (1200자, 100점)

(가)

우리가 읽는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뉴런의 연결망이 음속 수준으로 빠르게 자동 반응하며 뇌 구조 전역에 걸쳐 시각·인지·언어 영역 등에 연결이 일어나야 한다. 이때 뇌의 좌우 반구에 있는 4개 엽과 5개 층은 모두 사용되며 새로운 입력값을 수용한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인간의 문해력(文解力, literacy), 곧 글을 읽고 쓰는 능력은 생득적인 것이 아니다. 문해력은 호모사피엔스의 가장 중요한 후천적 성취 중 하나다. 6,000년 전에야 인류는 문자 문화를 개화해 뇌에 새로운 회로를 더하기 시작했다. 문제는 6,000년간 진화해 온 ‘읽는 뇌’는 디지털 기기의 등장과 함께 그 능력이 퇴화하고 있다는 점에 있다. 선천적인 능력이 아니라 후천적으로 습득된 문화적 능력이기엔 퇴화할 수 있는 것이다. 노르웨이의 한 연구에 따르면 같은 책을 종이책으로 읽은 학생이 전자책 단말기 킨들로 읽은 학생보다 줄거리를 시간 순으로 재구성하는 능력이 더 뛰어났다. ㉠이는 종이책과 다른 물성을 지니고 있는 디지털 기기가 데이터나 정보의 습득에는 매우 편리한 환경을 제공해주지만 그것이 곧 지식을 익히는 데에도 유리한 환경이 되는 것은 아님을 말해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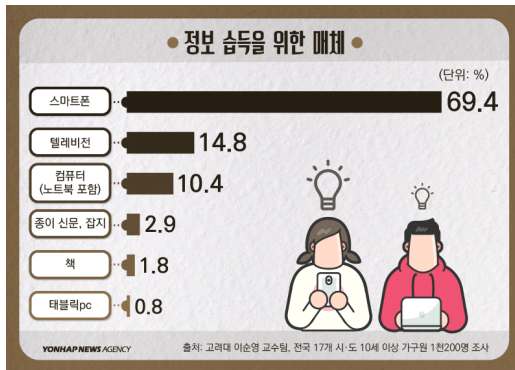
㉡그렇다면 과연 디지털 기기에 의존하는 우리 인간들의 삶은 어떻게 변하게 될 것인가? 그러한 변화에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

(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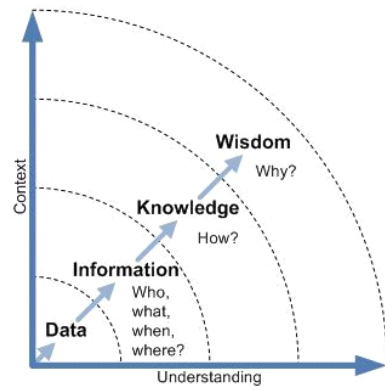
이제 어디를 가나 아리바바의 참깨
주문 없이도 저절로 열리는
자동문 세상이다.
언제나 문 앞에 서기만 하면
어디선가 전자 감응 장치의 음흉한 허끝이
날름날름 우리의 몸을 핏는다 순간
스르르 문이 열리고 스르르 우리들은 들어간다.
스르르 열리고 스르르 들어가고
스르르 열리고 스르르 나오고
그때마다 우리의 손은 조금씩 퇴화하여 간다.
하늘을 멀뚱멀뚱 쳐다만 봐야 하는
날개 없는 키위새
머지않아 우리들은 두 손을 잃고 말 것이다.
정작, 두 손으로 힘겹게 열어야 하는
그,
어떤,
문 앞에서는
키위키위 울고만 있을 것이다.

-유하, <자동문 앞에서>

(다)



[그림 1] 정보 습득을 매체 활용 현황



[그림 2] 데이터, 정보, 지식, 지혜의 위계